

2024 국가직 9급: 2024. 3. 23. 시행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문제와 자세한 해설을 함께 올려 드립니다.

해설 강의는 3월 23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이후 커넥츠 공단기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제 영역별 분석표

지식형 문항 (6)	국어 문법· 국어 규범 (4)	형태론: 파생어와 합성어 (1) 의미론: 단어의 의미와 용례 (1) 표준어 표기 (1) 올바른 문장 쓰기 (1)
	어휘·한자 (2)	한자: 적절한 한자 어휘의 선택 (2)
지문 분석형 문항 (14)	독해 (10)	말하기의 종류와 원리 (2) 구조에 맞게 문장 배열하기 (2) 제시문과 일치하는 정보 찾기 (1) 제시문을 읽고 내용 추론하기 (3)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2)
	현대 문학 (2)	현대 시 (1) 현대 소설 (1)
	고전 문학 (2)	고전 시가 (1) 고전 소설 (1)

* 출제 문항별 분석표

1	독해	구조에 맞게 문장 배열하기	11	고전 문학	고전 소설
2	독해	말하기의 종류와 원리	12	독해	구조에 맞게 문장 배열하기
3	국어 규범	표준어 표기	13	현대 문학	현대 소설
4	국어 문법	의미론: 단어의 의미와 용례	14	어휘·한자	적절한 한자 어휘의 선택
5	독해	말하기의 종류와 원리	15	고전 문학	고전 시가
6	국어 문법	형태론: 파생어와 합성어	16	독해	제시문을 읽고 내용 추론하기
7	현대 문학	현대 시	17	독해	제시문과 일치하는 정보 찾기
8	독해	제시문을 읽고 내용 추론하기	18	국어 규범	올바른 문장 쓰기
9	어휘·한자	적절한 한자 어휘의 선택	19	독해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10	독해	제시문을 읽고 내용 추론하기	20	독해	생략된 정보 추리하기

★ 선재국어 적중 내용은 동영상 해설 강의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총평

2024년 국가직 9급 시험은 6월 지방직을 비롯하여 앞으로의 국어 시험의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험이었다. 이번 시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제 기조 전환을 앞둔 해였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유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모든 문제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고 충분히 연습했던 유형으로 출제되었다. (국가직 VS 선재국어 모의고사: 비교 분석 영상 참고)

둘째, 독해와 함께 문법, 문학, 한자, 어휘 등 전 영역이 고르게 출제되었다. 기존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항별 비율, 즉 독해 11문제, 문학 4문제, 문법 3문제, 어휘 3문제가 출제된 것이다.

익숙한 유형과 익숙한 문항 비율에도 불구하고, **셋째**, 전체적인 난도는 코로나 이후 치러진 국가직 시험 중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므로 전체 평균이, 특히 중하위권의 평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번 시험은 결과적으로 독해를 비롯한 국어 영역을 충분히 학습한 학생들은 익숙한 유형을 바탕으로 무난하게 푼 반면, 일부 학생들, 특히 독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학생들은 어려움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체감 난도를 높게 느낀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시간의 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그간 국가직 시험이 매우 쉽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기존 시험보다 높은 난도의 문제를 푸는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은 학생들은 시간 배분에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똑같은 점수가 나왔어도 국어에 풀이 시간을 많이 써서, 결과적으로 다른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정보가 조밀하게 압축된 지문이 다수 출제되었다는 점도 난도가 높아진 이유이다. 특히 일부 추론형 지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문의 길이가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체감 난도가 높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전 영역의 출제, 특히 많은 학생들이 학습하지 않는 표준어와 고전 시가까지 출제되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문법 문제가 3문항(문장의 병렬 구조까지 포함하면 4문항)이 출제되어 생각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문학 역시 고전 시가인 <정과정>이 출제가 되어 전 영역을 학습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당황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국어 출제 방향이 '지문 독해를 바탕으로 한 추론형 강화'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올해는 출제 기조 전환을 앞둔 마지막 해이므로, 문법부터 어휘까지 '전 영역 출제'라는 기존의 출제 원칙을 충실히 고수했다는 점을 명심하자. 6월에 치러지는 지방직 시험에도 아마 이러한 출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독해를 중심으로 난도 있는 문제까지 훈련하되, 어휘와 기본적인 문법, 문학 지문에 대한 정리 역시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국가직 시험을 본 수험생들은 선재국어 모의고사의 힘을 절실히 체감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신유형을 포함해 모든 유형을 충분히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법과 어휘는 물론 19번 독해 지문까지 거의 유사하게 적중시켰다. 선재국어의 모든 문제들은 기존 공무원 시험 문제는 물론, PSAT, LEET, 수능 등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 시험에 가장 적합한 문항을 제작하고 있다. 질 좋은 교재와 수준 높은 문제가 결국 나의 합격을 앞당기는 도구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방직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모의고사부터 독해훈련 《독해야 산다》까지, 꾸준히 실전 훈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

*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합격이라는 결과로 곧 맺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선재국어와 함께하겠습니다.

01. (가)~(라)를 맥락에 따라 가장 자연스럽게 배열한 것은?

약물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우리 주변에는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가) 더구나 약물은 내성이 있어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하기 마련이므로 피해는 점점 커지게 된다.

(나)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로서 오용은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일, 남용은 함부로 지나치게 사용하는 일을 가리킨다.

(다) 그러므로 약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설명서를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라)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① (나) - (다) - (라) - (가) ② (나) - (라) - (가) - (다)
 ③ (라) - (가) - (나) - (다) ④ (라) - (다) - (나) - (가)

정답: ②

해설: 문장의 자연스러운 배열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글의 맥락에 따라 단어, 어구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에 유의하여 풀어야 한다.
 약물 오남용의 문제점과 약물 사용 시 주의 사항을 설명한 글이다.

약물이 오남용되는 경우가 있다. → (나) 오남용은 오용과 남용을 합친 말이다. → (라) 약물을 오남용하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 → (가) 더구나 약물은 내성이 있어서 피해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 (다) 그러므로 약물 사용 시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의하고 적정량을 사용해야 한다.

02.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고대 노예제 사회나 중세 봉건 사회는 타고난 신분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계급 사회였지만, 현대 사회는 계급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을: 현대 사회는 고대나 중세만큼은 아니지만 귀속 지위가 성취 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빈부 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잖아. ‘금수저’, ‘흙수저’라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 빈부 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병: 현대 사회가 빈부 격차로 인해 계급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계급 사회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계급 사회라고 말하려면 계급 체계 자체가 인간의 생활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 전체를 특정한 계급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 따라서 현대 사회를 계급 사회로 보기는 어려워.

갑: 현대 사회의 문화가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하지만 인간 생활의 근간은 결국 경제 활동이고,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 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어. 또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계급 사회라고 말할 수 있어.

- ①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박한다.
 ②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③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④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는 대립하지 않지만 을의 주장과는 대립한다.

정답: ②

해설: 지문의 형식은 화법이지만, 주장과 근거를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변별하는 문제이다.

을은 빈부 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이것이 대물림되면서 개인의 계급이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현대 사회가 계급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갑도 현대 사회가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주장에 의문을 갖고,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는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을의 주장과 갑의 주장은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을은 귀속 지위가 성취 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현대 사회가 계급 사회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갑은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므로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갑은 을의 주장을 수용한 것이며, 갑이 을의 주장 중 일부를 반박한 부분은 없다.
- ③ 갑은 '경제적 계급 논리로 현대 사회의 문화를 충분히 설명하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이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반면 병은 '특정한 계급 논리만으로 오늘날 각종 문화나 생활 방식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 사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을 도출하고 있지 않다.
- ④ 현대 사회를 계급 사회로 보기 어렵다는 병의 주장은 현대 사회를 계급 사회로 보는 갑과 을 모두의 주장과 대립한다.

03. 밑줄 친 부분이 표준어로 쓰인 것은?

- ① 그 친구는 허구헌 날 놀러만 다닌다.
- ② 닭을 통째로 구우니까 더 먹음직스럽다.
- ③ 발을 잘못 디터서 하마트면 넘어질 뻔했다.
- ④ 언니가 허리가 잘룩하게 들어간 코트를 입었다.

정답: ②

해설: 표준어 표기가 맞는 단어를 찾는 문제이다.

• **통째로(○)/통채로(×)**: '통째'는 '(흔히 '통째로' 꼴로 쓰여) 나누지 아니한 덩어리 전부'를 뜻한다. '-째'는 '그대로', 또는 '전부'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 오답 풀이: ① **허구헌(×) → 허구한(○)**: '날, 세월 따위가 매우 오래다'의 뜻으로는 '허구(許久)하다'가 바른 표기이다.
- ③ **하마트면(×) → 하마터면(○)**: '조금만 잘못하였다더라면'의 뜻으로, 위험한 상황을 겨우 벗어났을 때 쓰는 말은 '하마터면'이 표준어이다.
- ④ **잘룩하게(×) → 잘룩하게(○)**: '기다란 물건의 한 군데가 패어 들어가 오목하다'의 뜻으로는 '잘룩하다'가 표준어이다.

적중! 2024 기출 변형 모의고사 - 03회 핵심 자료선 / 2024 매일 국어 시즌 3 - 5회 7번

04. 다음은 다의어 '알다'의 뜻풀이 중 일부이다.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
- ㉡ 다른 사람과 사귀어 있거나 인연이 있다.
- ㉢ 어떤 일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 ㉣ 어떤 일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정하거나 판단하다.

- ① ㉠: 그 외교관은 무려 7개 국어를 할 줄 안다.
- ② ㉡: 이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지낸 지 오래이다.
- ③ ㉢: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내가 알 바 아니다.
- ④ ㉣: 나는 그 팀이 이번 경기에서 질 줄 알았다.

정답: ④

해설: 의미론 중 다의어의 의미와 용례에 관한 문제이다.

'질 줄 알았다'에서 '알다'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믿거나 생각하다'의 의미로 쓰였으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의 예로는 '이 문제는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주게' 정도를 들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7개 국어를 할 줄 **알다**: (주로 ‘-을 줄 **알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을 할 능력이나 소양이 있다.
 ② **두 사람은 서로 **알다****: 다른 사람과 사귀어 있거나 안면이 있다.
 ③ **내가 **알** **바** **아니다****: (주로 ‘**알** **바** **아니다**’ 구성으로 쓰여) 어떤 일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관심을 가지다.

유형 적중! 2024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17회 14번

05.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진행자: 우리 시에서도 다음 달부터 시내 도심부에서의 제한 속도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 교수: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바뀌는 제도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강 교수: 네, 시내 도심부 간선 도로에서의 제한 속도를 기존의 70km/h에서 60km/h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진행자: 시의회에서 이 정책 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주장하셨나요?
강 교수: 차량 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효과는 미미하고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하여 대기 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이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 교수: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 작년에 7개 구간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험 적용해 보니, 차가 막히는 시간은 2분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상 이상의 인명 사고는 26.2% 감소했습니다. 또 이산화 질소와 미세 먼지 같은 오염 물질도 각각 28%, 21%가량 오히려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진행자: 아, 그러니까 속도를 10km/h 낮출 때 2분 정도 늦어지는 것이라면 인명 사고의 예방과 오염 물질 감소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만한 시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강 교수: 네, 맞습니다.
진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교통 체증 유발은 미미할 것이라는 점, 오염 물질 배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의 제한 속도 조정 정책은 훌륭한 정책이라는 것이군요, 맞습니까?
강 교수: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 ① 상대방이 통계 수치를 제시한 의도를 자기 나름대로 풀어 설명한다.
 ② 상대방의 견해를 요약하며 자신이 이해한 바가 맞는지 확인한다.
 ③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견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
 ④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예시한다.

정답: ④

해설: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화법 문제이다.

진행자는 강 교수에게 질문하고 강 교수의 말을 요약·정리하고 있을 뿐,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 강 교수가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강 교수가 ○○시에서 진행한 시험 적용 결과를 통계 자료로 제시하자, 진행자는 ‘속도를 10km/h 낮출 때 ~ 말씀이시군요’에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진행자의 마지막 발언인 “교통사고를 줄이고 ~ 맞습니까?”에서 알 수 있다.
 ③ 진행자는 정책 도입에 반대하는 일각의 주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라며 강 교수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있다.

06. 다음을 참고할 때, 단어의 종류가 같은 것끼리 짝 지어진 것은?

어떤 구성을 두 요소로만 쪼개었을 때, 그 두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 한다.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어근인 단어는 합성어라 하고 어근과 접사인 단어는 파생어라 한다.

- ① 지우개 - 새파랗다 ② 조각배 - 드높이다
- ③ 짓밟다 - 저녁노을 ④ 풋사과 - 돌아가다

정답: ①

해설: 형태론 중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합성어와 파생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 **지우-개**: ‘지우다’의 어근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 ‘-개’가 붙은 파생어이다.

• **새-파랗다**: ‘파랗다’에 ‘매우 짙고 선명하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새-’가 붙은 파생어이다.

따라서 ‘지우개’와 ‘새파랗다’는 모두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진 파생어이다.

오답 풀이: ② • **조각-배**: 어근 ‘조각’과 어근 ‘배’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 **드높-이다**: ‘(드- + 높-) + -이다’의 구성이다. ‘드높이다’는 ‘높다’에 ‘심하게’ 또는 ‘높이’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드-’가 붙은 파생어 ‘드높다’에 다시 ‘사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이-’가 붙은 파생어이다.

③ • **짓-밟다**: ‘밟다’에 ‘마구’, ‘함부로’, ‘몹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짓-’이 붙은 파생어이다.

• **저녁-노을**: 어근 ‘저녁’과 어근 ‘노을’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④ • **풋-사과**: 어근 ‘사과’에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풋-’이 붙은 파생어이다.

• **돌아-가다**: ‘용언의 어간 + 연결 어미 + 용언’의 구성인 합성어이다.

유형 적중! 2024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6회 17번

07. 다음 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머리가 마늘쪽같이 생긴 고향의 소녀와
한여름을 알몸으로 사는 고향의 소년과
같이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 길에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제비가 날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그렇게
그렇게

천연히

울타리 밖에도 화초를 심는 마을이 있다
오래오래 잔광이 부신 마을이 있다
밤이면 더 많이 별이 뜨는 마을이 있다

- 박용래, <울타리 밖>

- ① 향토적 소재를 활용하여 공간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 ②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리듬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화자를 표면에 나타내어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④ 하나의 시어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박용래의 <울타리 밖>은 인간과 자연이 꾸밈없이 조화를 이룬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이다.

시적 화자가 시의 표면에 직접 드러나려면 작품에 ‘나’, ‘우리’ 등의 표현이 나타나야 한다. 이 시에는 ‘나’, ‘우리’ 등이 나오지 않으므로 화자가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아름다운 고향의 풍경을 묘사

하여 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고향에 대한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오답 풀이: ① 마늘쪽, 들길, 아지랑이 등 고향의 정취가 담긴 향토적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들길이 펼쳐지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고향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② 2연의 '~가(이) ~듯', 4연의 '-니 마을이 있다'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④ 3연은 '천연히'라는 하나의 시어로만 구성하여 꾸밈없고 자연스러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 천연(天然)히: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이

08.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진화 개념에 대해 흔히 오해되는 측면이 있다. 첫째, 인간의 행동은 철저히 유전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진화 이론이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이러한 적응 성향을 발달시키고 활성화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둘째, 현재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 체계는 오랜 진화 과정에 의한 최적의 적응 방식이라는 생각이다. 그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가령 구석기 시대의 적응 방식을 오늘날 인간이 지니고 있어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원시 시대에 사용하던 인지적 전략 등이 현재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원시 시대의 적응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①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으로, 마음은 유전의 영향으로 결정된다.
- ②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의 복잡한 정도가 클수록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 ③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이라도 환경에서 얻은 정보가 다르면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④ 조상의 유전적 성향보다 조상이 살았던 과거 환경이 인간의 진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정답: ③

해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1문단에서, 인간의 행동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과 환경으로부터의 입력이 상호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같은 조상을 둔 후손은 유전적인 적응 성향이 동일하더라도 환경이 다르다면 후손들의 행동은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④ 1문단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환경의 영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과 환경이 상호 작용한 결과이다. 유전과 환경 중 어느 것이 인간의 진화에 영향을 더 많이 미치는지는 제시문에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유전의 영향으로 결정된다는 내용도 없다.

② 상황의 복잡성이 인지적 전략의 최적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은 없다. 2문단에, 현재 인간의 마음이나 행동 체계는 최적의 적응 방식이 아니므로 오늘날의 복잡한 상황에 적응하는 데는 원시 시대의 인지적 전략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만 있다.

09. ㉠~㉣에 들어갈 한자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현실을 (㉠)한 그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 그는 (㉡)이 잦아 친구들 사이에서 신의를 잃었다.
- 이 소설은 당대의 구조적 (㉢)을 예리하게 비판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① 度外視 | 食言 | 矛盾 | ② 度外視 | 添言 | 腹案 |
| ③ 白眼視 | 食言 | 矛盾 | ④ 白眼視 | 添言 | 腹案 |

정답: ①

해설: 문맥에 맞는 적절한 한자어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 ㉠ 정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는 내용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을 무시하고 중요하지 않게 여긴다는 의미의 한자어가 들어가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상관하지 아니하거나 무시함’의 의미인 ‘度外視(법도 도, 바깥 외, 볼 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 ㉠의 뒤로 ‘친구들 사이에서 신의를 잃었다’라는 내용이 이어지므로 ‘한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인 ‘食言(먹을 식, 말씀 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인 ‘矛盾(창 모, 방패 순)’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 矛盾(창 모, 방패 순):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중국 초나라의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팔면서 창은 어떤 방패로도 막지 못하는 창이라 하고 방패는 어떤 창으로도 뚫지 못하는 방패라 하여, 앞뒤가 맞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데서 유래한다.

오답 풀이: ㉠ 白眼視(흰 백, 눈 안, 볼 시):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로 흘겨봄. 진나라 때 죽림 칠현의 한 사람인 완적이 반갑지 않은 손님은 백안(白眼)으로 대하고, 반가운 손님은 청안(靑眼)으로 대한 데서 유래한다.

㉡ 添言(더할 첨, 말씀 언): 덧붙여 말함.

㉢ 腹案(배 복, 책상 안): 겉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함. 또는 그런 생각

유형 적중! 2024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10회 5번 / 2024 최종 점검 모의고사 - 제1회 3번 등

10.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날 인터넷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에서의 ‘비대면’ 접촉에 의한 상호 관계가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오프라인’이나 ‘대면’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실체감이 있는 아날로그적 접촉을 가리킨다.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분법적인 용어로 명료하게 분리되지 않는 활동들도 많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문자를 주고받음으로써 대면 상호작용과 온라인 상호작용을 동시에 할 수 있다.

한편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 서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때 아날로그 상호작용 수단과 디지털 상호작용 수단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처럼 오늘날과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 우리의 경험은 비대면 혹은 대면,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같은 이분법적 범주로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다. 상호작용 양식들이 서로 겹치거나 교차하는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할 때 이분법적인 범주는 심각한 한계를 지닌다.

- ㉠ 이분법적 시각으로는 상호작용 양식이 교차하는 양상을 이해하기 어렵다.
- ㉡ 비대면 온라인 상호작용으로는 사람들 간에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 ㉢ 온라인 비대면 활동과 오프라인 대면 활동이 온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 ㉣ 오늘날에는 대면 상호작용 중에도 디지털 수단에 의한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정답: ㉡

해설: 제시문에서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2문단의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에서보다 온라인 비대면 상호작용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더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기도 한다’와 배치된다. 즉 비대면 오프라인 상호작용으로도 사람들 간에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2문단의 ‘상호작용 양식들이 ~ 한계를 지닌다’에서 알 수 있다.

㉢ 2문단의 ‘오늘날과 같은 ~ 이분법적 범주로 온전히 분리되지 않는다’에서 알 수 있다.

㉣ 1문단에 제시된 사례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누군가와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 즉 오프라인 대면 상호작용 중 문자라는 디지털 수단에 의해 상호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11.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부사는 장화와 홍련이 꿈에 나타나 자신들의 원통한 사정에 대해 고한 말을 듣고 배 좌수를 관아로 불러들였다. 부사가 물었다.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소?” 배 좌수는 머뭇거리며 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후처가 엿보고 있다가 남편이 사실을 누설할까 싶어 곧장 들어와 답했다. “제 친정은 이곳의 양반 가문입니다. 장녀 장화는 음행을 저질러 낙태한 뒤 부끄러움을 못 이기고 밤을 틈타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차녀 홍련은 언니의 일이 부끄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낙태한 증거물을 바치니 부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사는 그것을 보고 미심쩍어 하며 모두 물러가게 했다.

이날 밤 운무가 뜰에 가득한데 장화와 홍련이 다시 나타났다. “계모가 바친 것은 실제로 제가 낙태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계모가 죽은 쥐의 가죽을 벗겨 제 이불 안에 몰래 넣어 둔 것입니다. 다시 그것을 가져다 배를 갈라 보시면 분명 허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에 부사가 그 말대로 했더니 과연 쥐가 분명했다.

- 작가 미상, <장화홍련전>

- ① 부사는 배 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장화와 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했다.
- ② 배 좌수의 후처는 음행을 저지른 홍련이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부사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 ③ 장화는 배 좌수의 후처가 제시한 증거가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책을 부사에게 알려 주었다.
- ④ 배 좌수는 장화와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어보는 부사에게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했다.

정답: ③

해설: 작가 미상의 <장화홍련전(薔花紅蓮傳)>은 계모와 전처 자식 사이의 이야기를 다룬 권선징악형의 가정 소설이다.

후처가 장화와 홍련이 죽은 이유를 말하며, 장화가 음행을 저질렀다는 근거로 ‘낙태한 증거물’을 제시한다. 이후 장화와 홍련은 부사에게 다시 나타나 낙태한 증거물의 배를 갈라 보면 허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후처의 말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계책)을 부사에게 제시하고 있다.

* 계책(計策):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피나 방법을 생각해 냄. 또는 그 피나 방법

오답 풀이: ① 배 좌수의 후처가 장화의 음행의 증거, 즉 낙태한 증거물을 바치자 부사는 ‘그것을 보고 미심쩍어’한다. 따라서 부사는 후처가 제시한 증거를 보고 장화와 홍련의 말이 거짓이라고 확신하지 않았다.

- ② 배 좌수의 후처가 음행을 저질러 스스로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 것은 홍련이 아니라 ‘장화’이다.
- ④ 부사는 배 좌수를 관아에 불러들여 “딸들이 무슨 병으로 죽었소?”라고 물었고, 배 좌수는 머뭇거리며 답변하지 못했다. 부사가 ‘장화와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를 물어본 것은 아니다.

12.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에서 고르면?

나라에 위기가 닥쳤을 때 제 몸을 희생해 가며 나라 지키기에 나섰으되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이들이 이순신의 일기에는 뚜렷하게 기록된 것이다.

《난중일기》의 진면목은 7년 동안 전란을 치렀던 이순신의 인간적 고뇌가 가감 없이 드러나 있다는 데 있다. (㉠) 왜군이라는 외부의 적은 물론이고 임금과 조정의 끊임없는 경계와 의심이라는 내부의 적과도 싸우며, 영웅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느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이 잘 나타나 있다. (㉡) 전란 중 겪은 원군과의 갈등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그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보통의 인간이었음을 보여 준다. (㉢)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은 《난중일기》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과 함께 휘하 장수에서부터 병졸들과 하인,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 《난중일기》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 ① ㉠ ② ㉡
- ③ ㉢ ④ ㉣

정답: ④

해설: 문장의 자연스러운 배열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앞에 《난중일기》에서 휘하 장수에서부터 병졸들과 하인, 백성들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제시된 문장은 이들에 대해 부연 설명한 내용이며, ‘이것이 《난중일기》의 위대함’이라는 뒤의 내용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므로 ㉠ 다음에 오는 것이 적절하다.

유형 적중! 2024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4회 10번 등

13.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득, 제비와 같이 경쾌하게 전보 배달의 자전거가 지나간다. 그의 허리에 찬 조그만 가방 속에 어떠한 인생이 압축되어 있을 것인고. 불안과, 초조와, 기대와…… 그 조그만 종이 위의, 그 짧은 문면(文面)은 그렇게도 용이하게, 또 확실하게, 사람의 감정을 지배한다. 사람은 제게 온 전보를 받아 들 때 그 손이 가만히 떨림을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구보는 갑자기 자기에게 온 한 장의 전보를 그 봉함(封緘)을 떼지 않은 채 손에 들고 감동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전보가 못 되면, 보통 우편물이라도 좋았다. 이제 한 장의 엽서에라도, 구보는 거의 감격을 가질 수 있을 게다.

흥, 하고 구보는 코웃음쳐 보았다. 그 사상은 역시 성욕의, 어느 형태로서의, 한 발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물론 결코 부자연하지 않은 생리적 현상을 무턱대고 업신여길 의사는 구보에게 없었다. 사실 서울에 있지 않은 모든 벗을 구보는 잊은 지 오래였고 또 그 벗들도 이미 오랫동안 소식을 전하여 오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지금, 무엇들을 하고 있을꼬. 한 해에 단 한 번 연하장을 보내 줄 다름의 벗에게까지, 문득 구보는 그리움을 가지려 한다. 이제 수천 매의 엽서를 사서, 그 다방 구석진 탁자 위에서…… 어느 틈엔가 구보는 가장 열정을 가져, 벗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다. 한 장, 또 한 장, 구보는 재떨이 위에 생담배가 타고 있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가 기억하고 있는 온갖 벗의 이름과 또 주소를 엽서 위에 흘려 썼다……. 구보는 거의 만족한 웃음조차 입가에 띠며, 이것은 한 개 단편소설의 결말로는 결코 비속하지 않다, 생각하였다. 어떠한 단편소설의-물론, 구보는, 아직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았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① 벗들과의 추억을 시간순으로 회상하고 있다.
- ② 주인공인 서술자가 주변 거리를 재현하고 있다.
- ③ 연상 작용에 의해 인물의 생각이 연속되고 있다.
- ④ 전보가 이동된 경로를 따라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 ③

해설: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박태원의 자전적인 소설로, 주인공 구보가 경성(서울)의 거리를 산책하면서 겪는 사소한 일들과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인물의 심리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 글은 전보를 배달하는 자전거가 지나가는 모습을 본 구보의 연상 작용에 의해 그의 생각이 연속되면서 전개되고 있다. 즉 구보의 생각은 ‘전보를 받고 싶다 생각함 → 오랫동안 소식이 끊긴 벗들에 대한 생각함 → 친구들에게 엽서를 쓴다고 생각함’ 등으로 전개되고 있다.

***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에 나타난 의식의 흐름**

- 시간의 순서와 논리성을 무시한 채 등장인물의 의식, 생각의 흐름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함.
-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을 그대로 포착하여 기술함.
-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외부적 사건보다, 그것을 계기로 떠올리는 생각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룸.

오답 풀이: ① 벗들과 오랫동안 소식이 끊어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게 엽서를 쓰려고 하고 있을 뿐, 벗들과의 추억을 시간순으로 회상하는 내용은 제시문에 나오지 않는다.

- ② “문득, 제비와 같이 ~ 자전거가 지나간다”에서 서술자가 주변 거리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서술자는 주인공 구보가 아니라 외부 서술자이다. 이 글은 주인공 구보의 시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다.
- ④ 전보가 이동된 경로는 제시문에 나오지 않는다.

14. 밑줄 친 부분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하루 종일 거리를 배회(徘徊)하였다. → 돌아다녔다
- ② 이 산의 광물 자원은 무진장(無盡藏)하다. → 여러 가지가 있다
- ③ 그분의 주장은 경청(傾聽)할 가치가 있다. → 귀를 기울여 들을
- ④ 공지문에서는 회의의 사유를 명기(明記)하지 않았다. → 밝혀 적지

정답: ②

해설: 한자어의 문맥적 의미를 풀이하는 문제이다.

‘無盡藏(없을 무, 다할 진, 감출 잣)하다’는 ‘다함이 없이 굉장히 많다’의 의미이므로 ‘여러 가지가 있다’로 바꾸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徘徊(노닐 배, 노닐 회)하다: 아무 목적도 없이 어떤 곳을 중심으로 어슬렁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 ③ 傾聽(기울 경, 들을 청)하다: 귀를 기울여 듣다.
- ④ 明記(밝을 명, 기록할 기)하다: 분명히 밝히어 적다.

유형 적중! 2024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20회 4번

15. 다음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 님물 그리수와 우니다니
 산(山)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들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르시리이다.
 녀시라도 님은 훈디 녀져라 아으
 베키더시니 뉘러시니잇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이다.
 돌히트 마리신더
 솔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험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 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천상의 존재를 통해 화자의 결백함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④ 큰 숫자를 활용하여 입을 향한 화자의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정답: ④

해설: 정서의 <정과정(鄭瓜亭)>은 고려 때 정서가 유배지에서 자신을 복권하지 않는 임금(의종)에게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부른 향가계 여요이다.

“과도 허믈도 천만 업소이다”에 큰 숫자인 ‘천만’이 나온다. 그러나 이 구절은 (자신에겐) 잘못이나 허물이 없다는 말로, 이를 통해 화자의 결백을 주장한 것이지, 그리움을 강조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① “산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에서 알 수 있다. 접동새는 한과 고독함의 표상인데, 화자는 접동새에 감정을 이입하여 유배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잔월효성이 아라시리이다”에서 천지신명을 의미하는 ‘잔월효성’은 천상적 존재이다. 이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결백함을 호소하고 있다.
- ③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내게 허물이 있다고) 우기던 이는 누구였습니까?”에서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을 포함한 자들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니미 나를 흐마 니즈시니잇가(임께서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에서 설의적 표현으로 자신을 잊은 듯한 임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적중! 2024 매일 국어 시즌 4 - 12회 2번

16.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새의 몸에서 나오는 테스토스테론은 구애 행위나 짝짓기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번식기가 아닌 시기에는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번식기에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화 양상은 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짝짓기에 성공하여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전후하여 달라진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암컷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영역을 차지하려고 다른 수컷과 싸워야 한다. 이 시기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높아진다. 그러다가 수정이 이루어지면 수컷은 곧바로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그 수치는 떨어진다. 새끼가 커서 동지를 떠나게 되면 수컷은 더 이상 영역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번식기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좀 더 떨어지고, 번식기가 끝나면 테스토스테론은 거의 분비되지 않는다.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암컷이 수정한 이후부터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수컷은 자신의 동지를 지키면서 암컷과 새끼를 돌보는 대신 다른 암컷과의 짝짓기를 위해 자신의 동지를 떠나 버린다.

- ① 노래참새 수컷은 번식기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새끼를 양육할 때보다 양육이 끝난 후에 높게 나타난다.
- ② 번식기 동안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이 이루어지기 전보다 이루어진 후에 낮게 나타난다.
- ③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은 암컷이 수정한 이후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 ④ 노래참새 수컷과 검정깃찌르레기 수컷 모두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번식기가 아닌 시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보다 높다.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을 통해 추론할 수 없는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이 글은 대비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노래참새 수컷과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은 번식기가 지나면 테스토스테론을 거의 분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번식기에 나타나는 테스토스테론의 수치 변화 양상은 서로 다르다.

2문단의, 번식기에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새끼를 돌볼 준비를 할 때(새끼의 양육)보다 새끼가 커서 동지를 떠날 때(양육이 끝난 후)에 더 떨어진다는 내용에서 잘못된 추론임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② 2문단의, 번식기 동안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암컷의 수정을 기점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다.

- ③ 마지막 문단의,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번식기가 되면 올라갔다가 암컷이 수정한 뒤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다.
- ④ 2문단에 따르면, 노래참새 수컷의 테스토스테론은 번식기에 분비되고 번식기가 끝나면 더 이상 분비되지 않는다. 또한 마지막 문단에 따르면, 검정깃찌르레기 수컷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번식기가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으므로, 번식기의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번식기가 아닐 때의 수치보다 높을 것이다.

	번식기		번식기 끝	
	수정 전	수정 후		
		양육		양육 끝
노래참새	분비 ↑	분비 점차 ↓		
검정깃찌르레기	분비 ↑	분비 유지		

17. 다음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가 주장한 다중 지능 이론은 기존 지능 이론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기존 지능 이론이 언어 지능이나 논리 수학 지능 등 인간의 인지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 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을 창안해 냈다. 다중 지능 이론은 뇌 과학 연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는데, 뇌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좌뇌는 분석적, 논리적 능력을 담당하고, 우뇌는 창조적, 감성적 능력을 담당한다. 다중 지능 이론에서는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지능 검사에 대해 반쪽짜리 검사라고 혹평한다.

그런데 다중 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한다. 우선, 다중 지능 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기존 지능 이론에서 주목했던 지능의 종류들과 상호 독립적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에 따르면, 전자는 후자의 하위 영역에 속해 있고, 둘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서로 독립적일 수 없으며, 따라서 ‘다중’이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다중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들은 지능이라는 말이 측정 가능한 인지 능력을 전제하는 것인데, 다중 지능 이론이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한다.

- ① 논리 수학 지능은 다중 지능 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대인 관계의 능력과 관련된 지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이 있다.
- ③ 다중 지능 이론에서는 인간의 우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보다 좌뇌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한다.
- ④ 다중 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인간의 모든 지능 영역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이유에서 ‘다중’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답: ②

해설: 제시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이다.

1문단에 따르면, 대인 관계의 능력은 다중 지능 이론에 포함된 새로운 종류의 지능이다. 그런데 2문단에 따르면, 다중 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다중 지능 이론이 설정한 새로운 종류의 지능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②는 적절한 내용이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 따르면, 논리 수학 지능은 기존 지능 이론이 초점을 맞춘 지능 개념이다. 그런데 다중 지능 이론은 이 지능뿐 아니라 신체와 정서, 대인 관계의 능력까지 포괄한 총체적 지능 개념을 창안해 냈다. 따라서 논리 수학 지능은 다중 지능 이론의 지능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포함된다.

③ 다중 지능 이론이 우뇌와 좌뇌 중 어느 곳에서 담당하는 능력과 관련된 지능에 더 많이 주목하는지는 제시문에서 알 수 없다. 1문단의, 다중 지능 이론이 좌뇌의 능력에만 초점을 둔 기존의 지능 검사를 비판했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④ 2문단의, 다중 지능 이론에 대해 비판적인 연구자들은 기존의 지능 이론에서 주목했던 지능의 종류들과 다중 지능 이론에서 주장하는 새로운 지능의 종류들이 상호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다중’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는 내용과 배치된다.

18. 다음 글을 퇴고할 때, ㉠~㉣ 중 어법상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은?

주지하듯이 ㉠ 기후 위기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유럽에는 사상 최악의 폭염과 가뭄이 발생하고 그 반대편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우가 쏟아져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 ㉡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이러한 기상 재해 앞에서 기후학자로서 자괴감이 든다. 무엇이 문제인지,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지구의 위기를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크게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하여 ㉢ 국가 정책 수립과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힘을 기울여야 한다. 작게는 일상 생활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일 수는 있겠으나, ㉣ 지구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올바른 문장 쓰기 중, 글을 퇴고할 때 어법상 잘못된 문장을 수정하는 문제이다.

㉢은 문장의 병렬 관계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 이러한 유형은 대등하게 연결되는 문장 구조의 앞뒤를 확인하여, 병렬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 앞뒤의 문장 구조를 맞춰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나머지 ㉠·㉡·㉣은 모두 어법상 바르게 쓰였다.

유형 적중! 2024 기출 변형 모의고사 - 9회 15번 등 / 2024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1회 17번 등

19. 다음 글의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생소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주시하는데, 이때 특정 단어에 눈동자를 멈추는 ‘고정’이 나타나며, 고정과 고정 사이에는 ‘이동’, 단어를 건너뛸 때에는 ‘도약’이 나타난다. 고정이 관찰될 때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지만, 이동이나 도약이 관찰될 때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K 연구진은 동일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읽기 능력 하위 집단(A)과 읽기 능력 평균 집단(B)의 읽기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독서 횟수는 1회로 제한하되 독서 시간은 제한하지 않았다.

그 결과, 눈동자의 평균 고정 빈도에서 A 집단은 B 집단에 비해 약 2배 많은 수치를 보였다. 그런데 총 고정 시간을 총 고정 빈도로 나눈 평균 고정 시간은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읽기 후 독해 검사에서 B 집단은 A 집단보다 평균 점수가 높았고, 독서 과정에서 눈동자가 이전으로 돌아가지거나 이전으로 건너뛰는 현상은 모두 관찰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를 종합하여 읽기 능력이 부족한 독자는 읽기 능력이 평균인 독자에 비해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이 ()는 결론을 내렸다.

- ① 더 많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은 더 적다
 ② 더 많고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도 더 많다
 ③ 더 적지만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은 더 많다
 ④ 더 적고 난해하다고 느끼는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과정에 들이는 평균 시간도 더 적다

정답: ①

해설: 생략된 정보를 찾는 문제이다. 이 글은 평균 고정 빈도와 평균 고정 시간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하여 대조적으로 읽어야 한다. 따라서 대조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②, ④는 정답이 될 수 없다.

A 집단은 읽기 능력 하위 집단이며, B 집단은 읽기 능력 평균 집단이다. '고정'은 독자가 글을 읽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 눈동자를 멈출 때 나타난다. 따라서 A 집단이 B 집단보다 평균 고정 빈도가 더 많았다는 것은, 난해하다고 느끼는 단어들의 수가 B 집단에 비해 A 집단이 더 많았다는 의미이다.

	A 집단 (읽기 능력 하위)	B 집단 (읽기 능력 평균)
평균 고정 빈도	↑	↓
평균 고정 시간	↓	↑

그런데 평균 고정 시간은 B 집단이 A 집단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A 집단이 B 집단보다 각각의 단어를 이해하는 데 평균 시간을 더 적게 들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①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지문 적용! 2024 기출 변형 모의고사 - 8회 18번

20. 다음 글의 ㉠과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채식주의자는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섭취 여부에 따라 다섯 가지로 나뉜다. 완전 채식주의자는 이들 모두를 섭취하지 않으며, 페스코 채식주의자는 고기는 섭취하지 않지만 생선은 먹으며, 유제품과 달걀은 개인적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섭취한다. 남은 세 가지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되 유제품과 달걀 중 어떤 것을 먹느냐의 여부로 결정된다. 이들의 명칭은 라틴어의 '우유'를 의미하는 '락토(lacto)'와 '달걀'을 의미하는 '오보(ovo)'를 사용해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는 고기와 생선은 먹지 않으나 유제품과 달걀은 먹는다. 락토 채식주의자는 (㉠) 먹지 않으며, 오보 채식주의자는 (㉡) 먹지 않는다.

- ① ㉠: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먹지만 유제품은
- ② ㉠: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 ③ ㉠: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먹지만 달걀은
- ④ ㉠: 유제품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달걀은
㉡: 달걀은 먹지만 고기와 생선과 유제품은

정답: ④

해설: 생략된 정보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락토오보·락토·오보 채식주의자는 공통적으로 고기와 생선 모두를 먹지 않되, 유제품과 달걀 중 어떤 것을 먹지에 따라 구분된다. '락토'는 우유를 의미하며 '오보'는 달걀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 이름이 모두 들어간 락토오보 채식주의자는 유제품과 달걀은 먹는다. 이를 통해 해당 식품의 이름이 들어간 채식주의자는 그 식품은 먹되 다른 식품은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락토 채식주의자는 유제품은 먹되 고기와 생선, 달걀은 먹지 않으며, 오보 채식주의자는 달걀은 먹되 고기와 생선, 그리고 유제품은 먹지 않을 것이다.

	고기	생선	유제품	달걀
락토오보	×	×	○	○
락토	×	×	○	×
오보	×	×	×	○

유형 적용! 2024 실전 봉투 모의고사 1 - 제10회 4번 등 / 2024 최종 점검 모의고사 - 제3회 4번